

종영 '볼빨간 당신', 착한 예능이 우리에게 남긴 것



착한 예능 '볼빨간 당신'이 종영했다. KBS 2TV '볼빨간 당신'이 1월 29일 방송을 끝으로 시청자와 작별을 고했다. 볼빨간 당신은 부모님의

제2의 인생을 응원하는 자식들의 열혈 뒷바라지 관찰기. 첫 방송이 그려왔듯 마지막 역시 유쾌한 웃음, 따뜻한 공감, 물결친 가족애를 보여 주며 '착한 예능'의 진수를 보여줬다.

이날 '볼빨간 당신'에서는 양희경과 두 아들, 이체영과 아버지, 최대철 가족의 마지막 이야기가 공개됐다. 먼저 양희경과 두 아들은 '한랑

유쾌한 웃음·따뜻한 공감·가족에 보여줘

TV' 구독자들과 뜻 깊은 만남을 가졌다. 양희경은 '볼빨간 당신'을 통해 '집밥 전도사'라는 인생 두 번째 꿈에 도전했다. 개인방송인 '한랑 TV'를 통해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집밥 요리 레시피들을 공개한 것. 양희경과 꾸준한 이미지부터 유쾌한 성격까지 꼭 닮은 두 아들은, 그런 어머니의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를 해왔다.

한자리에 모인 '한랑TV' 구독자들은 고등학교생부터 주부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자랑했다. 이에 양희경은 동과육과 두 가지 종류의 생채를 준비, 즉석에서 요리를 완성했다. 그렇게 웃음이 끊이지 않는 구독자들과 만남 후, 양희경은 직접 만든 보리 된장을 선물해 훈훈함을 자아냈다. 이어 이체영은 80세 트로트 꿈나무인 아버지를 위해 아무진 뒷바라지를 이어갔다. 이체영 아버지가 드디어 자신의 곡으로 데뷔 무대를 서게 된 것. 소극장 오프닝 무대를 맡게 된 아버지는 다소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 그런 아버지를 위해 이체영

은 조연과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딸 이체영의 아무진도 진심 어린 뒷바라지 덕분에 힘을 낸 아버지는 무사히 첫 무대를 마칠 수 있었다. 무대 뒤에서 아버지를 바라보던 이체영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울컥 눈물을 보였다. 아버지도 "아버지 꿈 이뤄준다고 딸이 고생했다. 미안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진심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최대철 가족의 동반 마라톤 대회 출진이 공개됐다. 최대철은 광부로 일하며 가족을 지킨 아버지,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다리가 불편해진 어머니의 꿈을 이뤄드리기 위해 그동안 최선을 다했다. 특히 최대철 어머니의 "한 발짝이라도 내 발로 걷고 싶다"는 소망은 많은 시청자들의 가슴을 울리기도. '볼빨간 당신'을 통해 최대철 부모님이 아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다. 특히 어머니의 경우, 생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수술을 위해 노력하며 건강도 많이 좋아졌다. 그 결과 가족 동반 마라톤 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된 것. 최대철 가족은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5km 마라톤을 완주했다. 어머니가 아버지, 최대철의 손을 잡은 채 두 발로 풀인 지점을 통과하는 모습은 감동을 선사했다.

'볼빨간 당신'은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한 부모님을 위해, 자식들이 반대로 뒷바라지에 나선다는 역발상에서 시작된 프로그램이다. 기획의도에 따라 진짜 부모, 자식들이 출연했고 그만큼 거짓 없는 가족이야기가 펼쳐졌다. 그 안에 진짜라서가 가능한 웃음, 공감, 가족애, 감동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이다. 그렇기에 '볼빨간 당신' 속 부모님과 자식들의 모습에서 자신을 찾아볼 수 있었다. 단순히 웃고 즐기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따뜻한 공감, 진솔한 메시지를 모두 담아낸 것이야말로 '볼빨간 당신'이 의미 있는 착한 예능이었던 이유이다. 내 부모님의 꿈은 무엇인지, 그 열정을 위해 내가 어떤 뒷바라지를 할 수 있을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들어 준 프로그램. KBS 2TV '볼빨간 당신'이 만든 작은 기적은 긴 여운으로 남을 것이다.

'왕이 된 남자' 여진구 VS 김상경, 美친 연기 앙상블...최고 10.8%



'왕이 된 남자' 폭군 여진구가 총신 김상경에게 복수를 당하는 과격 전개가 시청자들에게 폭발적인 진 울과 막대한 여운을 안겼다. 이와 함께 또 한 번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웰메이드 드라마의 힘을 확인시키고 있다.

지난 29일 방송된 tvN '왕이 된 남자' 8회 시청률은 케이블, IPTV, 위성을 통합한 유료플랫폼 가구 평균 9.5%, 최고 10.8%로 지상파 포함 전 채널 1위를 차지했다. tvN 타겟(남녀20~49) 시청률 또한 평균 3.9% 최고 4.6%를 기록, 전 채널 포함 1위 수성하며 뜨거운 상승세를 이어 갔다.(유료플랫폼 전국 기준/닐슨 코리아 제공)

'왕이 된 남자' 8회에서는 광대 하신(여진구 분)이 구사일생해 공으로 돌아오고, 다시금 약물중독 증세로 쓰러진 폭군 이현(여진구 분)이 도승지 이규(김상경 분)의 손에 최

후를 맞는 모습이 그려졌다. 흉구멍이 속에서 비참하게 죽을 뻔했던 하신은 살고자 하는 의지와 호위무사 장무영(윤종석 분)의 도움으로 목숨을 부지했다. 앞서 이현으로부터 하신이 죽었다는 증거를 가져오라는 명을 받은 무영은 하신에게 도망지라고 충고 했지만 하신은 복수보다 중한 것이 그곳에 있다며 종전 소윤(이체영 분)을 위해 죽음을 각

오를 하고 공으로 향했다. 그 시작 이규는 이현이 남기고 간 비망기(임금)의 명령이나 의견을 적어서 승지에게 전하던 문서를 읽고 경악했다. 종전을 폐출하고 사약을 내리라는 어명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이현의 끝을 모르는 폭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달이 났다. 이현이 약물중독 증세로 정신을 잃고 쓰러진 것. 이에 이규는 비로 소 진짜 임금인 이현을 저버릴 결심을 했다. 이규는 비망기를 태우고 쓰러진 이현을 궁 밖으로 내보내기 용이하도록 대비(정영남 분)를 유괴하는 등 신속하게 상황을 정리했다. 하지만 며칠 후는 임금이 탄일로, 민약 궁 안에 임금이 없다면 돌통날 수밖에 없는 상황. 무영은 이규에게 하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고 그 길로 하신은 다시 입궐했다. 대전으로 돌아온 하신은 자신을

사지로 내몬 이규에게 설움을 터뜨렸고 이규는 살아서 돌아오길 바랐으며 처음으로 하신 앞에서 자신의 속내를 꺼내 냈다. 이에 하신은 "힘을 갖고 싶소. 목숨보다 소중한 사 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진짜 임금이 되고 싶소"라고 말했다고, 이규는 하신을 진짜 임금으로 세우겠다는 굳은 의지를 드러냈다.

이규는 각오를 행동에 옮겼다. 이현의 탄일, 이규는 이현의 은신처에 방문에 손수 해체탕(미역국)을 올린 뒤 비릿가 나들이를 청했다. 그리고 나서 이현에게 목을 탄 생일주를 올렸다. 이규의 충심을 철썩 같이 믿어온 이현은 배신감에 몸부림쳤다. 이에 이규는 애써 담담한 표정으로 "전하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와 백성을, 새로운 세상을 선택하는 겁니다"라고 말하며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했다. 나아가 "전하께서

바라시는 강성한 나라, 그 나라가 하루라도 빨리 오게 할 방도는 이것 뿐입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반드시 그리 되게 만들 것입니다"라며 진인 하지만 한편으로는 절절한 우국충정을 드러냈다.

끝이어 이현은 차디찬 모래 바닥 위로 쓰러졌다. 그는 "두렵네. 너무 무서워. 저승에선 내가 임금이라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겠지"라고 읊조리며 서서히 죽어갔고 이규는 "제가 마지막까지 곁에 있었습시다"라며 눈물을 삼켰다. 이현이 끝내 숨을 거두자, 그제서야 마저 대쪽이 갈라 지듯 이규의 담담했던 표정이 무너지며 눈물이 터져 나와 시청자들의 가슴까지 이렇하게 만들었다.

나이가 성군이 되고자 했으나 자신의 나약함으로 인해 안타까운 최후를 맞은 이현과, 모든 것을 바쳐 섬겼던 주군을 제 손으로 죽인 뒤

마지막 절을 올리는 이규의 투상은 형언할 수 없이 막대한 여운을 남겼다. 동시에 진짜 임금인 이현이 죽음을 맞는 과격적인 전개가 펼쳐진 만큼, 반환점을 튼 '왕이 된 남자'의 향후 스토리가 어떻게 뻗어나갈지 궁금증을 폭발시켰다.

무엇보다 이 같은 애증의 군신관계를 그려낸 여진구, 김상경의 연기 앙상블은 완벽 그 이상이었다. 여진구는 가장 믿었던 이로부터 배신당한 분노와 체념 그리고 두려움에 이르기까지 죽음에 시시각각 다가가는 감정을 형형한 눈빛에 담아내며 첫 회부터 8회까지 통틀어 최고의 연기력을 선보였다. 이에 '최고의 재'라는 수식어가 절로 상기됐을 정도. 그런가 하면 김상경은 '주군을 독살한 충신'이라는 이율배반적인 상황을 완벽히 완급조절로 실득시키며 시청자의 몰입도를 끌어올렸다.

더욱이 배경음악 없이 쓸쓸한 바 랍소리와 파도소리만 강조, 장면의

여운을 최고조로 이끈 김희원 감독의 엔딩 연출은 또 다시 시청자들을 전율케 하며 '왕이 된 남자'가 웰메이드 사극으로 각광받는 이유를 증명하기도 했다.

한편 다시 임금 노릇을 시작한 하신은 변해버린 지아비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소윤을 안심시키며 애절한 사랑을 키워나 갔다. 또 이현의 신임을 받은 삼아 국정을 장악하려는 간신 신지수(권해효 분)의 뒤통수를 치며 시청자에게 통쾌한 재미를 선사했다. 그러나 대비와 진평군(이무성 분)이 역모를 도모하고 대전 지밀 김상궁(민지아 분)이 임금의 옥체에 수상한 점이 있음을 감지하는가 하면, 하신이 광대놀음을 하던 시절 인연이 있는 김지봉(유형관 분)이 신지수에게 용인을 받은 광대 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며 또 다른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했다. 이에 날이 갈수록 흥미를 더해가는 '왕이 된 남자'에 기대감이 증폭된다.

빅스, 신곡 '걸고있다' 발매 예고

그들 빅스가 신곡 '걸고있다'로 돌아온다.

빅스는 30일 0시 공식 SNS 계정을 통해 '걸고있다'의 일부 가사가 담긴 리릭 포토 세 장을 공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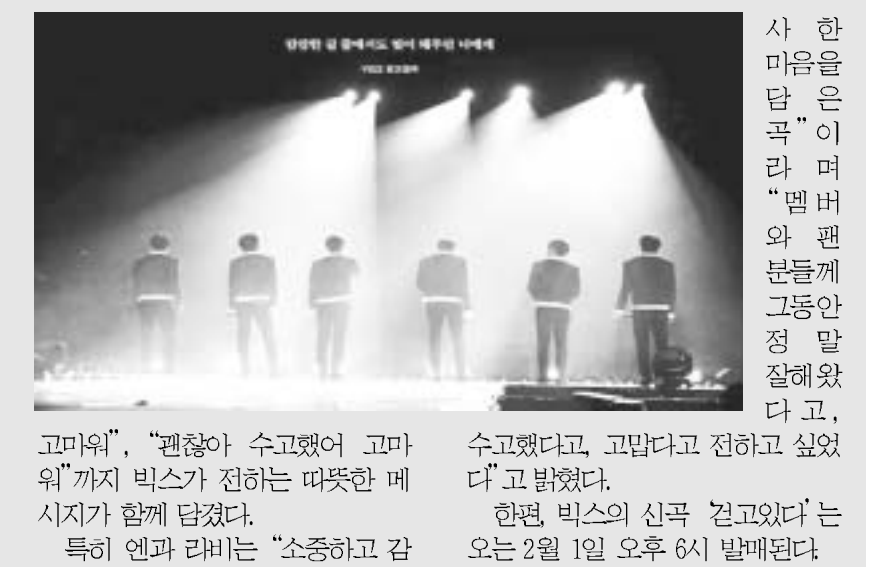
오는 2월 1일 발매를 앞둔 신곡 '걸고있다'는 지난 8년 동안 함께 해왔던 소중한 존재인 팬과 멤버들에 대한 진심 어린 마음을 담은 곡으로 멤버 엔과 리비가 작사하고 엔이 작곡한 자작곡이다.

빅스는 이번 신곡 '걸고있다'를 지난 27일 단독 팬미팅 현장에서

최초로 공개하며, 팬들에 대한 애 투하고 감사한 마음을 전해 더욱 특별한 의미를 더하기도 했다.

신곡 발매 전 공개된 리릭 포토 속에는 함께 손가락을 맞대고 별모양을 만들거나, 무대 위에서 객석의 팬들과 서로 눈을 맞추며 바라보는 등 꾸밈없는 빅스의 모습이 담겨있어 시선을 모은다.

또한 해당 이미지와 함께 '깜깜한 길 끝에서도 빛이 돼주던 너에게'부터 '함께 걸어온 너에게' 이어 길 해주고 싶어, 잘했어 수고했어



사 한 마음을 담은 곡"이라며 "멤버와 팬분들께 그동안 정말 잘해왔다고, 고마워", "괜찮아 수고했어 고마워"까지 빅스가 전하는 따뜻한 메시지가 함께 담겼다. 특히 엔과 리비는 "소중하고 감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전하고 싶어요"고 밝혔다. 한편, 빅스의 신곡 '걸고있다'는 오는 2월 1일 오후 6시 발매된다.

오늘의 순세 2019년 1월 31일 목요일 (음력 12월 26일)



▶**세끼** 가정에서 자신의 위상만 내세우고 협조 없으면 스스로를 낮추는 행이다. 집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말없이 나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귀가해서 해결하라. ㅅ, ㅁ, ㅈ 성씨는 동분서주 바쁘니 심신이 피로하구나. 건강에 신경쓸 때.



▶**세끼** 지난친 호의로 접근해오는 사람 경계하라. 아무리 친해도 금전 거래는 안하는 것이 좋을 듯. 서로 신의 깨지면 적이 될 수 있다. 부모 지식간이라도 계산할 것은 분명히 해두는 것이 서로를 위하는 일. ㄱ, ㄴ, ㅅ 성씨는 금전으로 고통 심할 수 있다.



▶**세끼** 아무리 바쁘더라도 자신의 건강 지킬 줄 아는 여유 가져라. 과로가 겹치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다.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 자신을 돌보는 것도 내일을 위한 재산이다. ㄱ, ㄴ, ㅎ 성씨와 거래 있으면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좋다.



▶**세끼** 최선을 잘못 하면 금이 간 사이가 더 악화될 수 있으니 행동 조심해야. ㄱ, ㅁ, ㅈ 성씨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가정에도 시간 써야. 대화의 장을 열어 화목을 유지해야만 매사가 순조롭다. 1, 3, 7월생은 마음고생이 크다.



▶**세끼** 행동이 말과 일치되지 않으면 본인도 주위 사람도 모두 피곤하다. 5, 10, 12월생은 점도 한때 사랑도 한때라지만, 분수 지키고 가정만 생각하라. 분별없이 저질러 놓은 일 지혜롭게 대처해야. 행동 조심해야 할 듯. 걱정된다.



▶**세끼**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처신에 따라 평가 대상이 될 수 있고 과민 반응을 보이게 된다. 아무리 보안이 철저하다 해도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 상대에게 오해 받을 수 있다. ㅅ, ㅁ, ㅈ 성씨는 자신의 일에만 충실할 것.



▶**세끼** 성급한 성격을 차분하게 바꾸고 모든 일을 느긋하게 한다면 실수도 없고 순조롭겠다. 이유없이 좋아하는 표현으로 유희하는 자는 경계함이 좋을 듯. ㄴ, ㅁ, ㅈ 성씨는 오늘 은 지나치게 속마음을 내보이지 않는게 좋다.



▶**세끼** 가족이란 삶의 부속품이 아니다. 서로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움을 창조하는 것이 화목이 된다. 1, 7, 12월생은 사업이 안된다고 짜증내지 마라. 겸손한 태도로 노력하면 대성할 가능성이 크다. ㅁ, ㅈ, ㅎ 성씨는 인내가 필요할 때.



▶**세끼** 판단을 확실히 내리지 못하고 어중간하게 처리한다면 신뢰받지 못하고 신용이 떨어진다. 1, 9, 11월생은 주고받을 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필요할 때. ㄱ, ㄴ, ㅈ 성씨가 동쪽에서 힘이 되어준다.



▶**세끼** 부부가 서로 아껴주고 희생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줘야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다. 3, 5, 9월생은 용기가 필요하다.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 때. 하는 일 점차적으로 좋아지지만 소득 면은 불안족.



▶**세끼** 여자는 진정 일로 자나캐나 걱정이야. 너무 집착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신경쓰지 말고 알아서 잊어라. 성급한 행동이 오해를 만들게 된다. 감정 앞세우지 말고 침착하게 처신함이 좋을 듯. ㄱ, ㄴ, ㅈ 성씨는 금전으로 신경과민, 부부 갈등 심각.



▶**세끼** 친구 간에도 존중해주는 이해심이 있어야 우정이 깊어진다. 자신이 월등하다고 상대방 무시한다면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없다. 어릴 적 친구가 사랑으로 변할 수 있다. 오늘 의 고난이 내일의 기쁨으로 돌아온다.